

[29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-2012.11

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 
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‘외부성’이라 한다.  
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 
이익을 준다든지, ①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  
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.

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 
초래할 수 있다.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  
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 
[A]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 $Q_a$ 라고 할 때, 생산  
량을  $Q_a$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. 하지만 이로  
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 
크다면, 생산량을  $Q_a$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 
하다.

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 
생산량을  $Q_a$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.

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 
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. 보조금을 받거나  
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 
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,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 
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.

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 
시간과 노력,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. 외부성은  
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 
못하는 경우이므로,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 
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. 어떤 방식이든, 정부  
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 
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.

29.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  
으로 행동한다.
-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 
초래하지 않는다.
-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 
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.
-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 
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.
-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 
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.

30. ①의 사례를 [A]처럼 설명할 때, <보기>의 ②~④에 들어갈  
말로 옳은 것은?

<보기>

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 $Q_b$ 라고 할 때, 생산량을  
②보다 ( ③ )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. 하지만 이로 인한  
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( ④ ),  
생산량을  $Q_b$ 보다 ( ⑤ )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.

② ③ ④

- |       |     |     |
|-------|-----|-----|
| ① 줄이면 | 크다면 | 줄이는 |
| ② 줄이면 | 크다면 | 늘리는 |
| ③ 줄이면 | 작다면 | 줄이는 |
| ④ 늘리면 | 작다면 | 줄이는 |
| ⑤ 늘리면 | 작다면 | 늘리는 |